‘우주 메카’ 고흥 ‘드론 메카’도 꿈꾼다

인력 양성·연구·판매 등 ‘원스톱 생태계’ 구축

미래성장 동력 육성…5월부터 세부 사업 착수

고흥군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는 드론(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에 나선다. 드론 제작·활용 인력양성은 물론 드론 연구·제작·시험·평가·실증·인증·전시·판매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드론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고흥군은 3일 드론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업종·입지 규제의 특례를 적용하고 대규모 정부재정의 투자를 이끌어 내 드론을 지역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전국 27개 규제프리존 사업에서 유일하게 드론산업 규제프리존에 선정됐다.

고흥군은 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을 꾸려 관련 규제 특례와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특히 드론 제조·활용 기업이 관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전시체험관과 드론 경주장, 기업지원시설 등 우주기술특화산단도 조성한다.

또 국가비행종합시험장 건립, 무인기 관련 기술지원 및 창업지원 사업, 드론 제조·운용에 필요한 인력도 양성한다. 오는 5월 정부의 최종 확정 절차를 거쳐 세부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드론 활용 시범사업을 위한 기업지원 플랫폼 선점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30일 드론을 시험비행할 수 있는 시범 공역으로 고흥군이 뽑혀 다음달 비행테스트를 앞두고 있다.

고흥군은 전국적으로 선정된 5곳 중 유일하게 시험비행 인프라(항공센터·활주로)가 구축된 점을 활용해 관련 기업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오는 1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내외 드론 산업 관련 관계자들을 초청해 ‘고흥 드론 산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도 연다.

고흥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전국 유일의 국가비행종합시험장과 전국에서 가장 넓은 무인기 전용공역(380㎢) 등을 가지고 있다”며 “기업 정주여건 개선, 드론 시장 창출, 투자인센티브 마련, 인력수급 방안 등 기업 유치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한국 민주주의전당 광주 유치위원들이 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광주 민주주의전당 유치 비대위 구성

서울·창원 3각축 건립 백지화 후속 조치

광주에 한국 민주주의전당 유치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

민주주의 전당 사업주체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서울, 광주, 창원(마산) 3각축 건립 계획을 백지화한 것과 관련, 강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민주주의전당 광주 유치위원회는 3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2013년 광주·창원(마산)·서울 삼각축 건립 협약 무효화 통보에 따른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창원시와 함께 실무협의기구 구성 등 애초 협약내용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또 국회, 정치권, 정부 등을 상대로 유치활동을 강화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동향도 파악해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김상윤 공동위원장은 “한국민주주의전당 광주유치를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13년 11월 27일 역사적 상징성과 민주도시로서 정체성을 지닌 서울, 광주, 창원(당시 마산)에 삼각축으로 건립하기로 협약했지만 지난달 18일 협약을 무효로 한다는 이사회 결정사항을 통보했다.

한국민주주의전당은 국내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 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 및 운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전당은 민주주의 발전과정을 정리·성찰·기념하고 민주화를 일궈낸 선혈들의 노력을 후손에 물려주기 위한 사업의 핵심 인프라다.

사업주체인 (사)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2013년11월 역사적 상징성과 민주도시로서 정체성을 지닌 서울, 광주, 창원(마산)과 함께 민주주의 건립 운영에 대해 삼각축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8일 협약체결 당사자인 광주, 창원(마산) 유치위원회와 협의 없이 2013년 협약을 무효화한다는 제8차 이사회 결정사항을 통보해 해당 자치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신안 천일염 호주 간다

신안 임자면 서울염전에서 생산한 천일염 36t(20kg 단위 1800포대)이 3일 호주 첫 수출길에 올랐다. 전남도가 천일염 명품화를 기치로 내건 뒤부터 전남산 천일염 수출은 꾸준히 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천일염 수출량은 지난 2009년 2171t에서 2013년 3684t, 2015년 4801t으로 해마다 35%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수출국도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으로 다양해졌다.

이번에 호주까지 가세해 전남 천일염 수출세는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도는 신안 앞바다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뒤, 신안 염전에서 생산한 천일염이 프랑스 게랑드 소금보다 나트륨 함량은 적은 반면 마그네슘 같은 유익한 성분은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출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의 떡국 나누기 설 연휴를 며칠 앞둔 3일 광주시북구장애인복지관 강당에서 열린 ‘사랑의 떡국나누기’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저소득층 중증장애인들에게 전달할 가래떡을 포장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대상지 선정

보성 장도·오나도 생일도 ‘섬 주제’ 찾기

“매력있는 섬으로 가꿀 것”

전남도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대상지로 선정한 보성 장도와 완도 생일도의 독특한 섬 자원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각 섬의 주제 찾기에 나섰다.

전남도는 3일 “5개 분야의 전문가로 TF팀을 꾸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장도와 생일도에 대한 자원조사를 마치고 2일 전남여성플라자에서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보고회에서는 자원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와 공무원, 섬별 추진위원, 섬 가꾸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용역 수행기관이 함께 참석해 섬 자원 보고에 이어 섬별 주제 선정과 섬 가꾸기 방향을 토론했다.

보성 장도의 특별한 산물은 꼬막과 낙지다. 청정하고 건강한 장도 갯벌은 도립공원이자 람사르 습지로 세계적 유산이다. 이는 먹거리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생태적 관광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로 손색이 없다.

완도 생일도는 개발바람을 맞지 않은 천연의 풍광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 사회적 경제부문 자원조사에 참가한 윤미숙 전남도 섬 전문위원은 ‘장도 섬 먹거리 마을식당 운영과 생일도 마을펜션 해피버스데이 리모델링’, 해양생태 및 어업문화 부문을 조사한 김준 광주전남연구원은 ‘장도 갯살림 대학 운영과 생일 학서암 연등제’를 발표했다.

또 섬 인문학스토리텔링 부문의 강제윤 시인은 ‘장도 섬마을 분교 영화제와 다시 태어나는 섬 생일’, 탐방로 및 등산로를 조사한 윤정준 한국의 길과 문화 이사는 ‘걸어서 꼼꼼히 둘러보는 장도 걷는 길과 생일도 학교 가던 길 복원’, 섬 식생 부문을 조사한 김성경 섬 코디네이터는 ‘천연기념물 검은머리물떼새 보존과 용출 갯돌밭의 정비’ 등의 주제로 한 연구성과물을 내놨다.

배택휴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지난해 시작한 6개 섬에 이어 올해 추가로 선정한 보성 장도와 완도 생일도에 대한 섬 현장 전문가들의 자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력 있고 특색 있는 섬으로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브랜드시책으로 추진하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는 오는 2024년까지 2633억원을 들여 24개 섬을 주민은 살고 싶고, 방문객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꾸는 사업이다. 지난해 첫 해에는 여수 낭도, 고흥 연홍도, 강진 가우도, 진도 관매도, 신안 반월박지도, 완도 소안도 6개 섬을 시작한데 이어 올해부터 해마다 2개 섬을 추가해 가꿔갈 계획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금남로에 힌츠페터 분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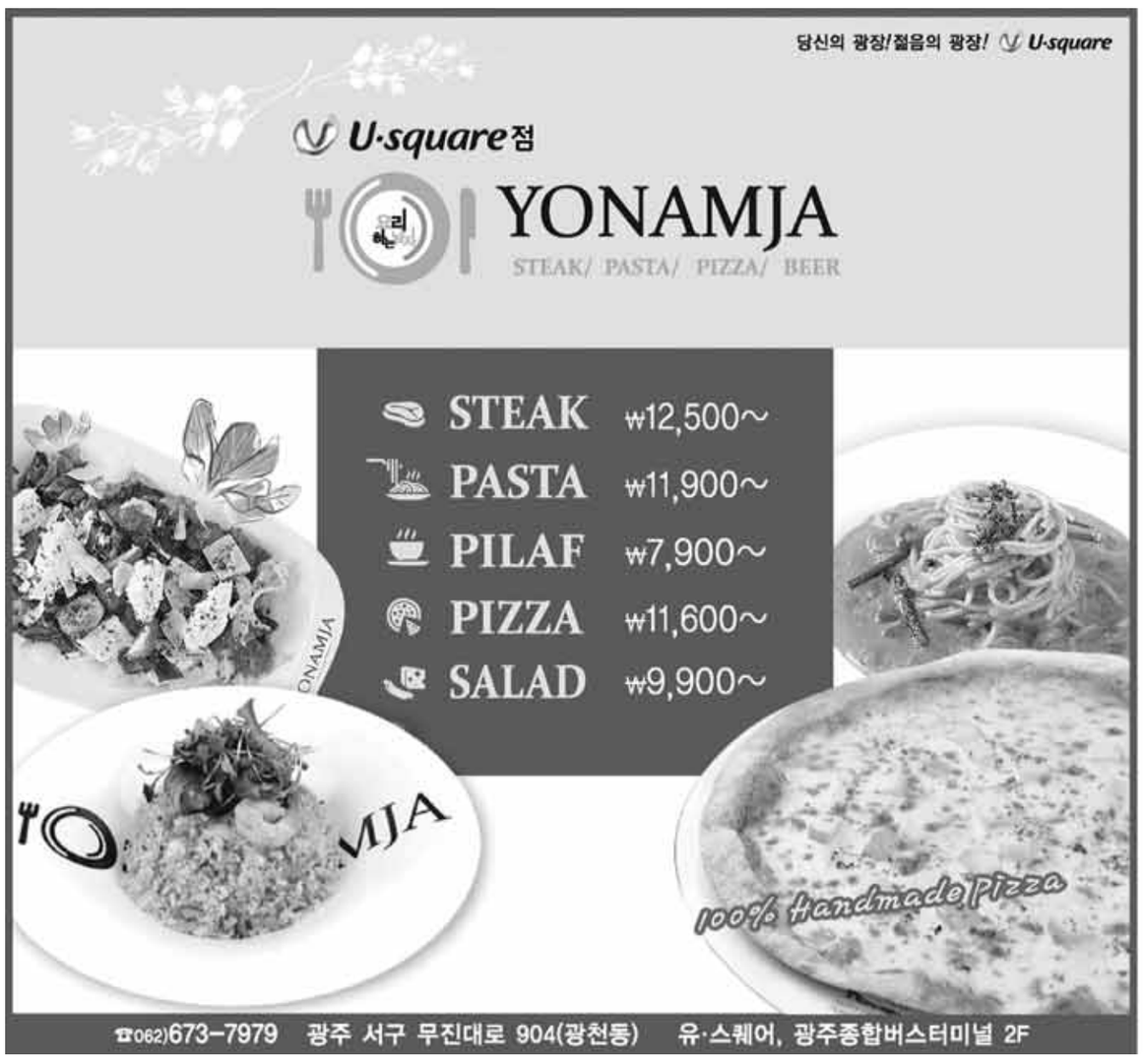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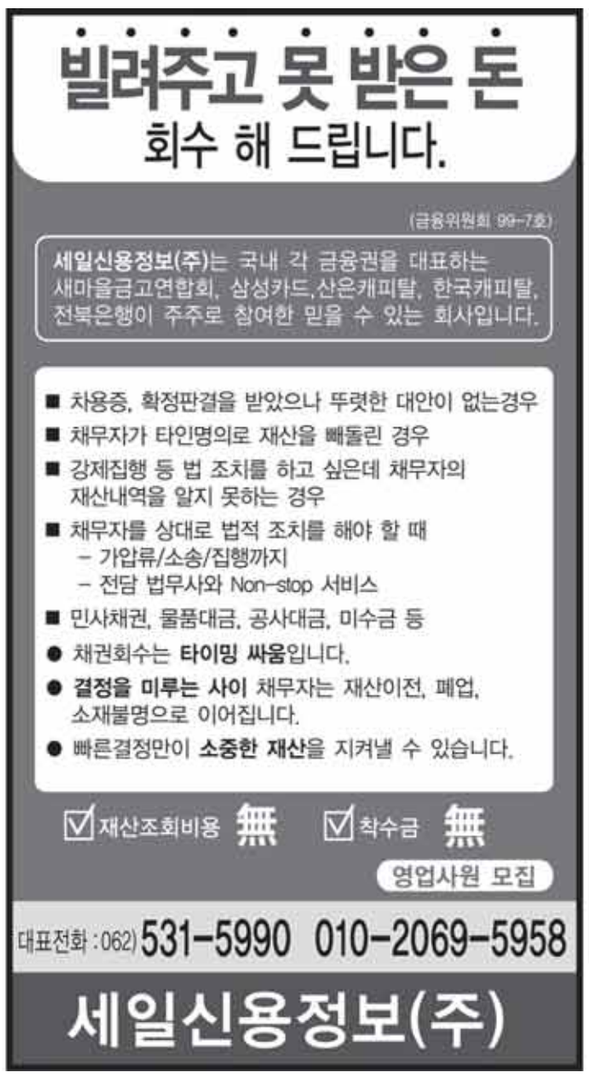
市, 5·18기록관에 설치…독일에 조문단 파견도

광주시가 ‘5월 광주’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 출신 위르겐 힌츠페터씨의 장례식에 조문단을 파견한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금남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분향소도 설치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4일 김수아 인권평화협력관과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 독일 북부도시 라체부르크를 방문, 유가족, 독일 현지교민, 단체 등과 함께 조의를 표할 예정이다. 고인의 장례는 5일 현지에서 진행된다.

김 인권평화협력관 등은 이 자리에서 광주시민의 감사한 마음을 담은 추모사를 낭독하고 ‘광주시 명예시민증’도 전달한다.

유족과 5·18묘역에 힌츠페터 추모비를 설치하는 것과 고인의 뜻을 받들어 신체 일부(머리카락, 손톱)를 묘역에 안장하는 방안을 논의 한다. 올해 5·18 추모행사에 유가족을 초청하는 것과 관련해 의견도 나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설치된 분향소는 5일까지(오전 9시~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윤장현 시장과 시 간부들은 3일 오후 분향소를 찾아 고인의 넋을 기렸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